

보성군, 2026년 새해 제1호 결재 '구들짱 민생 대장정'

답은 현장에! 현장 소통으로 민생 중심 군정 한층 강화

12개 읍면 생활 현장 140개소를 찾아 군민과 직접 소통

보성군은 2026년 새해 첫 결재(제1호)로 '구들짱 민생 대장정'을 확정하고 군정의 최우선 가치를 민생에 두는 현장 중심 행정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

'구들짱 민생 대장정'은 ▲[구]구석구석 찾아가는 현장 중심 행정, ▲[들]들어주고 공감하는 소통 공명 행정, ▲[짱]짱짱하게 해결하는 책임 완결 행정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이는 예전 겨울날 구들장에 둘러앉아 안부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에서 착안한 것으로 천천히 대위하지만 쉽게 식지 않는 구들장처럼 군민의 삶에 오래 남는 행정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민생 대장정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세 달간 진행되며 관내 12개 읍면 마을회관, 경로당 등 140개소 주요 민생 현장을 찾아 군민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대화 방식을 통해 군민의 삶 속 불편과 건의 사항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장에서는 ▲겨울철 한파 대비 및 생활 안전 점검, ▲마을 기반 시설 및 복지 시설 현황 확인, ▲'소통 구들짱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 정취가 함께 이뤄진다.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추진 상황과 결과를 군민에게 공유



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구들짱 민생 대장정'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민생 중심·현장 중심 행정 기조에 발맞춰, 행정의 출발점과 기준을 군민의 생활 현장에 두겠다는 보성군의 현장 행정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보성군은 "새해 첫 결재를 현장 소통 계획으로 시작한 것은 군정 운영 방향에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미"라며 "'구들짱 민생 대장정'은 군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약속인 만큼 군민의 일상이 따뜻해질 때까지 현장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영암군,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100호로 늘린다
국도비 407억 확보... 영암읍 남풍리 만원주택 50호 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제한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최종 선정됐다.

지역 제한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입주 자격과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영암군에 공급될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4㎡ 이하 신혼부부, 60㎡ 이하 청년을 위한 집으로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1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암군은 영암읍 남풍리에 조성될 지역제한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인 '전남형 만원주택'에 50호를 추가해 지상 12층, 총 100호 규모의 거주지를 건립할 예정이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으로 영암군과 전남도는 국비 220억, 전남도비 187억으로 구성된 총사업비 407억이 확보됐고, 앞으로 공동 주택 건립에 나선다. 이후 신혼부부와 청년 입주자모집, 단지 관리 등 운영 전반은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영암군은 전남도와 협력해 공사가 조기에 착공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신환중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영암군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인 한국도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청년주택을 공급해 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 청년의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주거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순천시시는 국토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행정경계 선형도를 함께 정비하는 사업을 2026년부터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연속지적도를 최신 좌표체계로 바꾸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와 행정경계선을 통합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토지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민이 행정정보를 믿고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순천시, 연속지적도 기반 국토정보 정비 본격 추진

토지이용계획·행정경계 통합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

연속지적도는 낱장(도곽)으로 제작된 지적도를 이어 붙여 만든 지도로, 그동안 기초정보인 지적도와외의 좌표 및 경계 불일치로 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민원서류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연속지적도를 세계 기준 좌표체계로 전환해 지도의 정

확도를 높이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와 행정경계선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으로 연속지적도 관리가 법적으로 강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토정보 통합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은 건축·개발 인허가나 토지거래 시 더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민원서류의 신뢰도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도 정비가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경성인 기자

광양시, '임신 준비 부부 엽산제 지원사업' 신규 추진

건강한 출산 위한 선제적 지원으로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광양시가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임신 준비 부부 엽산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신 전부터 임신 초기까지 부부가 함께 엽산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신경관 결손 등 태아 기형과 조산을 예방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여성이 만 49세 이하이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로,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3개월분 엽산제를 연 1회 지원한다.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연중 운영하며, 지원하는 엽산제는 의약품으로 보건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를 방문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엽산은 수정 후 4주 이내 형성되는 태아의 중추신경계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다. 임신 전부터 충분히 섭취하면 신경관 결손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모자보건사업은 임

산부 등록 이후 엽산제를 지원해 임신 준비 단계 부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해 복용해 왔다. 광양시는 이번 신규사업으로 임신 준비 단계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주·야간 임신부 교실을 비대면까지 확대 운영했다. 시는 2026년 엽산제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보다 촘촘하고 든든한 임신·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황영숙 출생보건과장은 "임신 준비 단계부터 부부가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인생 2막, 도전하세요" 화순군, 중장년 자격증 응시로 지원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완화로 재취업 역량 강화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복귀를 돕기 위해 국가자격증 응시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응시로 지원을 넘어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맞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퇴직 이후 '제2의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구직자로, 자격자운전기능사, 조리기능사, 요양보호사 등 산업현장 수요가 높은 국가기

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 시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응시료 지원은 자격시험 응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고, 서류 확인을 거쳐 다음 달 20일경 신청자 계좌로 지급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중장년 여러분께 작은 응원이 되길 바라며,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군민들의 도전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무안군, 2026년 1월 정례조회 개최

오로지 군민! 군민과 함께! '대전환 무안시대' 힘찬 출발 다짐

무안군(군수 김삼)은 5일 오전 9시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1월 정례조회를 열고, 병오년 새해를 맞아 '대전환 무안시대'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정례조회는 지난 2일 전남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시무식이 연기되고, 무안군 전 직원이 관내 시가지 체력 작업에 투입된 상황을 고려해 시무식을 겸해 진행됐다.

행사는 오전 8시 30분 중훈담 참배를 시작으로 직원 상호 간 신년 인사, 2026년 무안군 고향사랑기부금 제1호 기탁식, 군수 신년사, '대전환 무안시대' 군정 다짐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김삼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무안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의 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정 운영의 주요 목표로 ▲광주군 공항 이전 후속 협의를 군민과 함께 책

임 있게 논의 ▲RE100 기반 첨단 국가산단 조성 추진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으로 무안형 기본소득 기반 마련 ▲AI 기반 첨단 농업 거점 육성 ▲인구 20만 도농복합 자립도시 건설 ▲지역 산업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기후위기와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구현 ▲문화·관광자원의 융합적 발전을 통한 세계 속 무안 실현 ▲혁신을 통한 농축어업 경쟁력 강화 ▲사람 중심의 포용 복지와 교육 실현으로 신뢰받는 혁신행정 구현 등을 제시했다.

또 "2026년은 민선 8기의 결실을 맺고 무안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해가 될 것"이라며, "오로지 군민, 군민과 함께라는 원칙 아래 대전환의 무안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군민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무안군 제공

